

꺼질줄 모르는 촛불

최고기 재협상 발표 불구 민심 냉담...집회 예정대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연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 요청 방침이 발표됐지만 '촛불 민심'은 냉담했다. 시민단체와 대다수 시민들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냉각시키지 못한 일회성 미봉책으로 재협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고시 연기 등 후속 대책 발표 직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재협상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혀 한미간 통상마찰이 빚어질 경우 촛불집회가 '반정부'에서 '반미'로 옮겨 불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3일 "미봉책으로 국민을 우

롱하지 말라며 이번 주말과 10일 잡혀있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광주 시 동구 금남로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시국회의 입장발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미국과 자본의 머슴이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비가 오는 이날 밤에도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명박 취임 100일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역 13개 여성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체신을 단행하고 서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투명성기구 광주

전남본부도 성명서를 내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으로 신뢰를 잃은 정부가 경솔적인 촛불집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 지역 주요인사 100명도 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미국측의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남배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며 "뒤늦게나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같아 다행이지만, 미국이 과연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촛불 10일 최대

시민·학생·노동계·농민 조직적 참여...평화시위 분수령

광주지역 촛불집회가 6·10 항쟁 21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주요 대학의 동맹휴업이 이날로 예고된 데다, 노동계도 2만여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경찰도 평화적 기조를 유지해온 광주지역 촛불집회가 이날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매일 200~5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달 31일 밤 최고 5천여명까지 늘었지만, 서울과 달리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민중노총 광주·전남본부는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2만명 이상의 조합원과 가족들이 참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동안 광주 지역 노동계가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중립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여왔지만, 촛불집회와 연계해 투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대학생들도 이날 동맹휴업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전체학생대표자 회의를 열어 10일 동맹휴업을 추진중이며, 조선대

는 5일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교대도 동맹휴업을 검토중이다. 특히 대학생들은 10일 전남대에서부터 금남로까지 거리 행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농민기인 탓에 그동안 촛불집회 참여가 힘들었던 광주·전남의 농민들도 10일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열린 촛불 집회에 최대 10만명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권일·인현주기자 cki@

과잉 진압 피해자들 경찰청장 고소·고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국민대책회의'는 3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다친 윤모(35) 씨 등 피해자 12명과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공동대표 등 고발인 9명 명의로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신두호 서울가동단장을 포함해 경찰기동대 지휘 책임자, 시민들을 폭행한 경찰기동중대 중대장과 전투(의무)경찰대원들이 포함됐다. /최권일·인현주기자 cki@

사료값 비관 농민 자살 기도 중태

무안 삼향면 50대

양돈 농가 농민이 폭등하는 사료값을 대지 못해 사료 공급이 중단되자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3일 오전 8시께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김모(56)씨의 양돈농가 창고에서 김씨가 천장에 목을 맨 채 매달려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119로 신고했다. 김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목목 중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김씨는 최근 지수는 사료값으로 인하여 사육하던 돼지 200여 마리에 공 급해 오던 사료를 공급하지 못했 으며, 이 때문에 돼지 일부가 폐사한 것

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김씨가 사료회사에 의 상값을 제 때 갖지 못해 사료회사로 부터 사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사육하 던 돼지에 사료를 공급하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다.

무안 양돈협회 관계자는 "김씨는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자식같이 가르

던 돼지들에게 사료를 못 준 것을 고 민해왔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낙농용 사료값(20kg 기준)은 지난 해 7천원선에서 현재 1만1000원 선으 로 무려 57%나 오른 데다 정부가 저 리 대출등을 축산대책으로 내놓았으 나 대부분의 축산농은 이미 많은 빚 을 지고 있어 은행대출 자체가 불가 능한 상황이다. /이종형 기자 galee@

음료수 마시고 구토 증세

에어컨을 주막에 설치하려 간 30대 설치기사가 집 주인이 사다준 음료수를 마신 뒤 구토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실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오전 10시1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조모(여·60)씨 집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김모(32)씨가 집 주인 조씨가 사다준 L회사 음료수(180ml)를 마신 뒤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강필상기자 kps@



정부 비판 퍼포먼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시국회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국회의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이 회견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

'기막힌' 모녀 절도단

광주선 편의점 등 위장 취업 절도 잇따라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딸과 짜고 마트 물건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기막힌 모녀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광주지역 편의점과 PC방에 취업한 뒤 돈을 빼돌리는 절도범들의 위장취업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중업된 주의보'가 발령됐다.

목포경찰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목포시 상동 마트에서 204회에 걸쳐 4천80만원 상당의 물건을 빼돌려온 중대 중대장과 전투(의무)경찰대원들이 포함됐다. /최권일·인현주기자 cki@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 김씨는 딸이 계산원으로 일하는 마트에 들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필요한 물품과 생활용품들 잔액 산 뒤 딸이 서있는 계산대에 가 구매액과는 무관하게 1만~2만원만 결제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어치를 빼돌렸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10만원 어치를 사든, 20만원 어치를 사든 딸은 1만~2만원만 결제했고, 어머니는 훔친 술과 안주를 자신의 카페에서 팔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 모녀는 돈이 비는 것을

마트 계산원 딸과 짜고 4천만원대 물건 빼돌려

수상하게 생각한 마트측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광주남부경찰은 3일 PC방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현금을 훔친 10대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모(19)군은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PC방 등 두군데 PC방에 위장취업, 카운터에 보관중인 16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광주북부경찰도 이날 광주시내 편의점에 취업해 담배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최모(20)씨 등 2명을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니원침 (7523) 김장두



다 좋은 건축 상담자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책장 및 상담관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사 : 061) 337-0571

술 취해 '풍덩'...유조선 덕택에 구조

○술에 취한 50대 지체장애인이 부두에서 발을 헛딛어 바다에 빠졌으나 인근에 정박 중인 유조선에 의해 구사일생.

○3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K(51·지체장애 1급)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여수시 수정동 신항 제1부두 앞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가던 중 발을 헛딛어 바다에 빠졌다는 것.

○부두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 선장 김모(67)씨는 잠결에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들은 후 밖으로 나와 밧줄로 K씨의 안전을 확보한 후 '122해양경찰구조대'에 신고.

○구조대는 사고 해상의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여서 육상 구조가 어렵다고 판단, 구명부원을 던져 붙잡게 한 후 고속보트를 띄워 구조했으며,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K씨는 이날 오전 집으로 귀가.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유일정공(주)

1. 전문 설계팀 보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환경, 에너지 등)
2. 20년 이상의 시공 경험 보유 (주택, 상업, 공공, 산업 등)
3.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 (ISO 9001 인증)
4. 신속한 A/S 서비스 제공 (24시간 긴급 대응)

주요 사업 분야: 주택, 상업, 공공, 산업,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환경, 에너지 등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23번지 유일정공(주) 본사

전화: 061-337-0571

보람상조와 함께 할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는 전통적인 상조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징: 전통적인 상조 문화, 현대적인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철저한 품질 관리

문의처: 보람상조 고객센터 (02-1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 보람상조 본사